

### 7대 종단과 함께하는 자살예방 축제

불교상담개발원, 11월 17일 '자살예방위한 종교통합 문화대축제'

불교상담개발원(원장 도현)은 2014년도 생명존중 문화조성 민간지원사업으로 '자살예방을 위한 종교통합 문화대축제'를 개최한다. 보건복지부 주관, 불교상담개발원, 중앙자살예방센터, 한국자살예방협회 주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11월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평화문 시민연림마당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는 △종교통합 생명존중 부스 운영 △생명살림 문화축제 △생명살림 특목 3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된다. 종교통합 생명존중 부스운영에서는 불교·가톨릭·개신교·원불교·유교 등 각 종교와 민간단체 및 자살예방기관이 참여하는 홍보부스 운영과 심진 스님, 가수 유리상자·김태곤·전미경 등이 출연해 생명살림 축제 한마당을 가질 예정이다.

생명살림 문화축제에서는 생명지킴이 실천과 문화행사를, 생명살림 특목에서는 힐링 공연, 토코 콘서트를 마련해 참가자 모두가 어우러져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불교상담개발원은 "종교계에서도 각 교리에 따른 생명존중사상에 따라 생명존중 문화조성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나 한 자리에 모여 함께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종교계를 중심으로 한 자살예방 역량을 한데 모아 통합홍보를 실시해 종교간 화합을 통한 대국민 통합을 유도하고 자살예방사업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한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이내은 기자**

### 태고종 학천사, 수계법회 거행

11월 2일 전남 화순서, 제1회 산사음악회도 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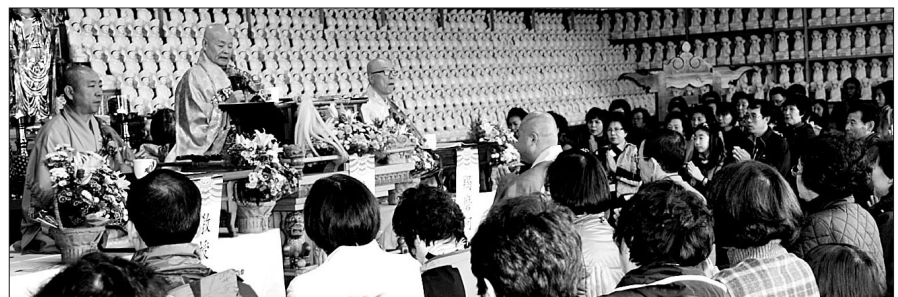
전남 화순 불선산 학천사(주지 정각)는 11월 2일 대웅전에서 대승보살계 수계법회 및 제1회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산사음악회는 세월호와 같은 국가적 재난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길 1600년 불교문화를 근간으로 한 우리 문화가 융성해지기를 기원하는 자리였다.

대승보살계 수계법회에는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계화상에 종정 혜초 스님, 갈마아사리 도산 스님(총무원장), 교수 아사리 호명 스님(총무원 부위원장)이 삼화상으로 학천사 회주 현호 스님, 선암사 주

지 설운 스님, 선암사 원로 서봉 스님, 광주 전남총무원장 호산 스님, 총무원 규정부장 지담 스님이 증명법사로 증참한 가운데 종사이온, 개식, 삼귀의례, 반야심경 봉독, 청법계, 혜초 종정예하의 법어, 수계의례 개설, 연비, 계점수여식 등으로 이어졌다.

오후에 열린 산사음악회는 1부 기념식과 2부 축하공연으로 이뤄졌다. 또한 학천사 회주 현호 스님이 능주고등학교 1학년 이초솔 학생과 화순고등학교 1학년 김창희 학생에게 장학금을 각각 전달했다. **이내은 기자**



전남 화순 불선산 학천사(주지 정각)는 11월 2일 대웅전에서 대승보살계 수계법회 및 제1회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 불레협 겨울불교학교 지도자 강습회

11월 15일 국제선센터서 진행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회장 해만, 이하 불레협)는 어린이·청소년포교 활성화를 위해 '제54회 겨울 지도자 강습회'를 개최한다.

이번 겨울강습회는 11월 15일 오전 9시 국제선센터에서 열리며 <법규>를 재밌고 쉽게 지도할 수 있는 교육법과 2015년 1년을 알차게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활용법

과 체험활동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2015 법회프로그램 △팀워크를 활용한 레크리에이션 △캘리와 석고 방향제를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찬불가를 활용한 법회지도법 등으로 마련됐다.

불레협은 "강습회에 참여한 지도자들이 스스로 즐기고 느낀 것을 법회에서 활용해 좀 더 재밌고 유익한 법회가 될 수 있도록 강습회를 개최한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02)738-7860 **이내은 기자**

## 식이 아닌 藥의 개념... 조리법 인기

전국 사찰음식강좌 '풍성'

'절법'으로 불리는 사찰음식은 불교에서 음식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사찰에서는 스님들이 음식을 먹는 과정 자체를 하나의 수행으로 여기고 있으며, 그 음식 자체도 단순한 식(食)이 아닌 약(藥)의 개념으로 몸을 다스리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또 사찰음식 자체를 불교에서 가장 중시하는 생명평화의 정신을 전파하는 도구로 보고 있다.

특히 사찰음식은 기본에 가장 충실한 음식으로 자연의 순리에 맞춰 제철 식재료를 활용, 음식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추구하며, 수행에 가장 적합한 재료들로 구성돼 수행을 위해선 사찰음식을 먹어야 함이 마땅하다.

또한 최근 '힐링푸드' '슬로우 푸드'로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지면서 사찰음식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하지만 사찰음식이 종교적 공간에서만 들어진다는 점과 접근성 때문에 쉽게 가까워지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

이런 가운데 사찰음식 강좌를 열어 재가자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조리법을 배우고 불교를 접할 수 있게 하는 곳들이 있어 눈길을 끈다.

**불교여성개발원**(02-722-2101)은 매주 화요일마다 '몸과 마음과 자연을 살리는 건강한 밥상' 강좌를 열고 있다. 건강한 밥상 문화를 통해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사찰음식대중화를 통해 불교의 생명존중사상을 확산하기 위해 제철음식과 장아찌 및 김치 담그기 등 조리법을 가르쳐주고 실습한다.

지난 11월 4일, 불교여성개발원 교육관에서는 사찰음식 강좌가 한창이었다. 이날 수강생들은 '연잎밥' '묵밥' '양상추 샐러



불교여성개발원은 매주 화요일마다 '몸과 마음과 자연을 살리는 건강한 밥상' 강좌를 열고 있다.

드'를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최혜경 불교여성개발원 사찰음식센터장은 "사찰음식은 깨달음을 얻는 수행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음식을 먹고 난 뒤 별탈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 몸에 쌓여 병이 된다"며 "먹을 때 음식이 내 몸에 득이 될까 실이 될까 생각해야 한다"며 수강생들에게 조리법을 지도했다.

수강생들은 오신채를 넣지 않고도 맛을 낼 수 있다는 것에 신기해한다. 수강생 유은경 씨는 "오신채를 넣지 않으면 맛이 안날까 걱정했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다. 집에서 음식을 만들 때 사찰음식 조리법대로 하는데 가족들도 눈치 채지 못하는 것 같다"며 "불상생계도 지키고 영양도 보충하는 사찰음식을 생활화해야겠다"고 말했다.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목동 국제선센터(02-2650-2200) 지하 1층에 사찰음식교육관 '함적세계'를 운영하고 있다. 웰빙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사찰음식을 배우고자 하는 수강생들도 늘어나 초·중·고급강좌가 개설돼 있다.

광주광역시에는 '빛고를 자연사찰음식 체험관'이 마련돼 대중에게 다양한 강좌를 열고 있다.

중심사와 (사)자비신행회가 공동으로 문을 연 이곳은 실습(교육) 공간, 다목적(교류) 공간, 회의 공간, 전시 공간 등으로 구성된 각종 사찰음식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요리학원 수준의 시설이 갖춰져 있다.

체험관에서는 계절별로 4차례에 걸쳐 강좌가 열린다. 매주 수요일 주간, 야간반 강의로 구성되며, 학기별로 초청특강, 현장 체험학습, 템플스테이, 요리대회 등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사찰음식 교육은 제철 식재료를 기본으로 한다. 계절에 맞는 약선음식, 치유음식, 떡, 간식 등을 만들어보고, 내 몸과 체질에 맞는 자연요법관리법도 배울 수 있다.

**수원 봉녕사**(031-256-4127)는 사찰음식교육관 '금비라'를 운영, 사찰음식 보편화·세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찰음식의 기본이 되는 조리법과 천연재료를 이용한 계절식을 배우게 되며 초급반 1년과 정을 이수하면 수료증을 발급한다.

## 성직자들 축구하며 '화합과 평화' 다짐

4대종교인 성직자 축구대회

4대종교 성직자들이 축구로 하나되며 '화합과 평화'의 장을 펼쳤다. 2014 성직자 축구대회가 11월 3일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렸다. 조계종 총무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원불교 중앙총부가 공동 주최한 이 행사는 각계 종교인 150여 명이 모여 종교간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마련했다.

조계종 사회부장 정문 스님은 "4대 종단이 모여 매년 열고 있는 행사다. 이번 경기가 종교인 화합과 친선 도모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참가한 스님들이 몸 안 다치고 경기를 잘 했으면 좋겠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주장 지담 스님은 "세월호 참사 때문에 행사가 취소되어 올해는 경기가 없는 줄 알았는데 갑작스럽게 하반기에 행사가 치러진다는 소식을 듣고 짧은 시간에 어렵게 선수 구성을 했다"며 "4대 종교인 모두가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며 경기에 임하는 소감을 밝혔다.

2005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는 성직자 축구대회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돼 예선 2경기 준결승 결승 순으로 진행됐다. 불교는 주장 지담 스님을 중심으로 20여 선수들이 참가해 기량을 발휘했다. 이날 경기에서 불교팀은 천주교팀과 치른 예선경기에서 3대 2로 우승을 차지하고 결승전에



2014 성직자 축구대회가 11월 3일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렸다.

올랐으나 원불교에 2대 0으로 패해 아쉽게도 2위에 머물렀다. 선수로 참여한 서호 스님은 "승패에 상관없이 성직자들이 화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며 참가 소감을 전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 보

## 사단법인 대한불교종정협의회

### 제11대 회장 석대응 대종사 · 제3대 이사장 석월인 대종사 취임대법회

# 축

귀의 삼보하옵고 만추의 계절에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증만하옵기를 합장 기원드립니다.

금번 사단법인 대한불교종정협의회 제11대 회장 석대응 대종사, 제3대 이사장 석월인 대종사 취임식이 오는 양력 11월 17일 월요일(음력윤9월 25일) 오전10시에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성대히 봉행하오니 한국불교계 고승대덕 스님을 비롯 정계, 학계, 언론계, 종교계, 인사님들께서는 두루 동참하시어 법석을 빛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법하의 가내에 부처님의 가피로 건승과 행운이 항상 깃들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

불기2558(2014)년 10월

- 아 래 -

○ 행사제목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제11대 회장 석대응 대종사 제3대 이사장 석월인 대종사 취임대법회

○ 일시: 불기 2558(2014년) 양력 11월 17일 (음력 윤 9월 25일) 월요일 오전10시부터

○ 장소: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1-3) (02)735-4111~3번

○ 사무처: (02)756-1227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제11대 회장 석대응 대종사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제3대 이사장 석월인 대종사

○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⑥번 출구 / 3호선 경복궁역 ⑥번 출구 1, 2호선 시청역 ③번 출구

○ 버스 103, 109, 150, 401, 402, 406, 704, 1711, 7016, 7018 7022, 7023, 401

○ 광역버스 5500, 9001, 9400, 9401, 9411, 9600, 9602, 9706 9708, 9713

○ 주차장(지하) 세종문화회관 주차장 또는 세종로 주차장을 이용하시고, 주차권은 식당에서 확인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대전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 동부상가맨션2층 216-1호 전화: (042)285-1227 ● 사무처: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6-17호 헤빙빌딩 6층 전관 전화: (02) 756 - 1227 홈페이지: http://www.jongjeong.com